

『글로벌 위험사회』 (World Risk Society) 2010  
 올리히 벡 저. 박미애·이진우 역

1장

저자 서문

- 위험 사회 (Risikogesellschaft) 1986
- 글로벌 위험사회 (World Risk Society) 1999
- 10여 개국 언어로 번역되어 No
- 책을 쓰게 된 동기: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건들 때문
- 위험사회의 영향사에는 리스크의 세계화 경향이 반영됨.
- 이 책을 쓰게된 동기를 부여한 책들
  - 요스트 반론(Boost an Loom)의 Risk and Technological Culture: Towards a Sociology of Virulence
  - 피트 스트리덤(Piet Strydom)의 Risk, Environment and Sociology - Ongoing Debates, Current Issues and Futures Prospects
  - 마이클 메이슨(Michael Mason)의 The New Accountability: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cross Borders
- : 글로벌 위험 사회에서 발생하는 책임을 묻는다.
- 진 케스퍼슨과 로저 케스퍼슨(Jeanne X. Kasperson/Roger E. Kasperson)의 The Social Continues of Risk(2/Vois) : 지역 간의 비교 연구와 글로벌 연구를 통해 풍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례들을 제시했다.
- 에릭슨과 도일(Ericson/Doyler): 저자의 '보험 원칙'(2004)을 비판. 리스크는 보험으로 보장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저자의 명제를 비판함.
- 에이드리어나 페트리나(Adriana Petryna 2002): 체르노빌 이후의 상황에서 무지와 위험의 조합을 인류학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분석함.
- 마틴 쇼(Martin Shaw): "리스크는 권력이다" 2005라는 원칙을 새로운 리스크 문배 전쟁의 사례를 통해 분석함.
- 에드거 그랜드와 로터 파울리(Edgar Grande/Lotnar Pauli): Complex Sovereignities (2005): 글로벌 위험사회와 국제정치의 상관관계를 조명함.
- 앙겔라 포벨과 나탄 스키니디(Angelika Poter/Natan Sznajder): 저자의 국제주의 기획과 학문적으로 대결한 목소리들을 수집함.
- 페터 벨링(Peter Wehling): 2006. 무지 문제에 대한 성제하고 치밀한 작업을 내놓음.
- 프랑수아 이월드(Francois Ewald 2002): 리스크 이론과 리스크 사회학에서 보상은 리에서 예방논리로 나아가는 중요한 결정을 내림.
- 브루노 라투르(BRUNO LATOUR 2001): 자신의 행위자-네트워크-이론의 시각에서 저자의 리스크 이론을 조명함.
- 바버라 허드슨(Barbara Hudson): 위험사회에서의 정의에 관해 상찰.

- 에드워드 리 푸마와 벤저민 리(Edward Li Pma/Benjamin Lee 2004): 글로벌 금융 위기에 관한 성찰

서문: 글로벌 리스크 연출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논쟁은 끝났으나 정치적, 도덕적 설명은 새로운 전환점에 이르렀다. 연구자들은 인간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단언한다.

- 2007년 2월 정부 간 기후변화전문위원회(IPCC) 보고서

2) 계량적 예견은 새삼을 바꾸다

- 영국여권의 소지자 테러리스트들은 히스로 공항에서 미국행 여객기 여러 대를 액체 폭탄으로 폭파하려 했던 자살폭탄 테러 시도했지만 미수로 끝남. 그 후 3개월 이내, 유럽연합 전체에 적용되는 규정이 발효됨. 액체의 기내 반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

: 이러한 조치는 예견된 테러에 대한 글로벌 반응.

모기력한 자들의 권력 또는 은행들의 평판해소 리스크

- 독일 베스트팔렌 주에서 활동하는 조그만 환경단체의 압력으로 불기리아에서 진행중이던 수십억 유로짜리 핵발전소 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함.

· 국경을 뛰어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반핵 시민단체들의 시위 이후 도이체방크와 히포 페리아인스뱅크는 벨리네 핵발전소에 대한 양자개혁을 철회함.

· 환경평가를 포함한 사업평가의 측면에서 변한 것은 없었다. 단지 반핵단체와 그들의 유럽 쪽 파트너의 항의 시위 때문에 이런 행보를 취함. 그 결과 글로벌 자본주의의 은밀한 권력자인 은행이 굴복함.

위험한 배이는 배제된다

- 유전학과 생식의학의 눈부신 성공으로 유전학적으로 질병 발생의 위험이 적은 배아들을 선택하여 건강한 아기들을 출산가능의 시대 도래

: 유전적 선별에 관대해 진다는 신호  
 이 시술로 인한 장애의 후유증 우려

윈턴과 뉴욕, 도쿄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다

- "영과 신선한 공기, 석유 같은 한정된 천연자원을 둘러싼 전쟁은 역사만큼 오래되었다"  
 - 마거릿 베크트(Margaret Beckett), 영국 외무장관, 2006. 11

- 기후변화가 국제정치 문제가 된다면, 반대로 국제정치는 기후변화가 제기되는 문제의 해결 방책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 글로벌 협상:

· 지구 온난화가 십씨 4도에서 5도 정도 올라간다면 윈턴과 뉴욕, 도쿄는 바다에 가라앉는다. 지역·문제인 윈턴의 침수를 막기 위해 글로벌 협상이 필요하다.

· 기후변화 넘버원 국가인 미국이 행동에 나서게 만들어야 한다. 또한 글로벌 정의를 위한 다함공식을 발견(발명)해야 한다. 이는 중요한 과제이자 유토피이며 모든 국가는 각각의 고유한 국가적 이해관계 때문이라도 협력할 수밖에 없다.

전선 변화

- 기후정치에서 패러다임의 변화 관찰가능
- 다다수의 초국적 경제는 전선을 바꾸어 환경공학과 재생 가능 에너지 시장을 둘러싼 경쟁에서 유리한 출발권을 차지하려고 시도한다. 이는 시민사회운동과 대기업들이 새로운 동맹을 맺고 있다는 의미이다.
- 유럽과 캘리포니아: 환경운동과 국가가 자동차 산업에 대항하여 연합전선을 펴기에 이л.
- 회사들의 자발적인 책임부여는 성과가 없기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
- 유럽연합 위원회와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압력: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엄격하게 줄여한다.
  -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
- 국가와 자본 간의 신자유주의적 동맹이 대기하고 있다.

세계의 추악함을 감추려는 결셈

- 온세에 대한 엄려: 기후변화가 야기한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새로운 **해법전선**과 연관된 **예측할 수 없는 위험으로 대체**해야 한다.
- 자기제언의 평가 불가능성을 뒤로 감추고 다른 리스크의 위험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그때 그때 내리는 결정을 안전한 대안과 위험한 대안들 사이의 결정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해서는 안 될 단순화에 대한 유희이다.

세계의 타인전화 또는 속초기 완전한다

- 글로벌 리스크 테러리즘에 대항하여 군대를 동원: 1986년생 솔츠: 보통 독일인, 행동 배낭과 책임감을 짊어짐. 9000명의 독일 병사들의 임무는 국제안보지원단(Saf), 코소보평화유지(KFOR) 등등의 이름으로 불리면서 아프가니스탄, 보스니아, 코소보... 수단에 나가 감시군의 역할을 한다. 독일 역시 국가가 테러리스트들을 상대로 벌이는 '비대칭적 전쟁'이나 '위험 상황'같은 단어들을 배운다.
- 솔츠는 2001.9.11. 처음으로 '재상이 정말 막하다'고 느낀.
-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관통하면서 그것들을 단 하나의 각본 구성요소로 만드는 핵심 실마리는 글로벌 위험사회가 지닌 미지의 의미 세계에서 나오는 장면들이다.
- 이 책의 목표: 파악하려는 의지를 자극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기여하려는 것.
- 위험-위협사회-글로벌 위험사회라는 개념적 새 단계에서 시험해 보고자 함.

1. 리스크

- 리스크의 의미론: 미래의 위험과 연관되는데, 이 위험은 종종 문명의 성공에서 비롯된다.
- 열우토피적인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동원이 가능해진.
- 리스크의 두 얼굴인 기회와 위험: 산업화 과정에서 대륙 간 해상무역과 함께 시작되면서 주제로 부상함.
- 신과 리스크 사이의 틈이 벌어지는 가운데 유럽의 소설은 리스크와의 결함을 시작했다.

- 리스크의 등장은 신의 세계 통치자의 지위, 이 지위와 연관된 세계 혁신적인 결과를 포기해야 한다.

- 지상의 삶이 도말할 미래는 더 이상 신의 권능과 신의 지혜에 복종하지 않는다. ; 이 지상의 삶은 신이 없는 상황에서 리스크는 많은 것을 기약하지만, 무섭고 이해할 수 없는 에메모호함을 펼친다. 이해득실을 따지고 진보와 몰락을 서로 연결하며, 모든 인간적인 것과 오류, 무지, 오만, 풍제의 약속, 마지막에는 가능한 자기 파괴의 씨앗조차 지신 안에 담는다.

- 확률론: 1651년 피에르 페르마(Pierre Fermat)와 블레즈 파스칼(Blaise Pascal)이 주고 받은 서신에서 확률론이 전개됨.

· 확률론은 계산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첫 시도이다.  
· **에메모호함을 보고 느끼는 경악과 공포는 리스크의 모험성과 둔키호테적 측면의 특성이며 가장 유명한 것과 가장 불길한 것이 존재하는 최신 기술과 더불어 그 어느 때보다 현실적이다.**

- 리스크라는 범주는 불확실성과의 관계를 표현한다.

- 오노레 드 발자크의 소설에서 압도적 주제: 경찰이나 법원, 재계 또는 범죄자나 군대나 국가 권력의 세계 같은 근대적 사회제도. 막스 베버(Max Weber)의 신비한 합리화 이론,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권력이론에서처럼 리스크의 제도적 형태, 지배를 확장하는 형태가 집중 조명된다.

- 사회는 에메모호하고 불투명한 리스크라는 토대 위에 세워져 있다.

- 오늘날 리스크의 의미론: 기술, 경제, 자연과학 언어와 정치언어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  
- 리스크는 '매개 주체'이다: 고도의 혁신사회는 결국 과학과 정치, 경제의 분업을 새롭게 조정해야한다.

2. 위험사회

- 현대화가 이룬 성과들의 결과가 주제를 이룬다.

- 위험을 제도적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크의 새로운 위험성이 나타난다.

- 정치 영역에 새로운 도덕적 분위기가 생겨난다.

- 나라마타 달라지는 문화적 가치평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 리스크법: 과학과 기술에서 유래하는 리스크의 취급을 주로 행정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연구 차원으로 점점 범위를 넓힌다.

- 사회적인 리스크 개념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전개되는 죄와 책임을 둘러싼 공방

· 메리 더글라스(1966, 1986)의 주장: 인문학적 필연성이 아니다.

- 근대 이전 사회의 위험에 대한 책임 소재: '운명의 장난' 즉 신이나 악마나 자연 같은 '외부' 탓

- 19세기와 20세기에 전개된 현대사회의 제도사: 인간의 결정에서 비롯된 산업적 불안과 위험을 다루는 구체 시스템을 감동을 겪으면서 만들어가는 과정

- 리스크 계산: **출연자** 리스크에서 **해발전선** 리스크까지 건강관리문제에서 근본적으로 이질적인 현상에 적용될 수 있을뿐더러 경제적 리스크와 실연, 교통사고, 노화 등의 리스크에도 적용가능.

- 위험사외의 범주: 산업에서 발생한 위험이 통제할 수 있고 보상할 수 있다는 리스크 계약의 핵심 이념을 의문시하는 과정을 주제로 설정
- **현대사회의 스스로 산출한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깨졌고 그것도 현대가 실패하거나 제대로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승리했기 때문이다. 예: 기후변화**
- **이 시대는 성공적인 현대화의 부작용과 불확실한 인생 기록들, 파악하기 어려운 위험과 씨름한다.** 다음은 저자의 결론이다.
  - 위험은 '전쟁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위험의 언어는 전염성이 있고 사회 불평등의 형태를 띤다.
  - 우리는 '글로벌 위험 공동체'의 구성이 된다. 국가 단위로 위험과 싸울 수 없다.
  - 과학의 진보로 전문가의 입지는 좁아진다: 여러 분야의 과학이 리스크를 연구한다고 해서 리스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리스크에 대한 의식은 예리해지고 리스크는 '집단적'으로 가시화된다.
  - 불안이 삶의 느낌을 결정한다.
  - 불안경제는 사람들에게 만연한 신경쇠약으로 돈을 번다.

### 3. 글로벌 위험사회

- : 리스크와 재앙 구분

#### 리스크의 재앙

- 리스크와 재앙은 동의어가 아니다.
  - 리스크는 재앙의 예견이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세계 상황을 눈앞에 보여준다.
  - 재앙: 공간적, 시간적, 사회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반면, 재앙 예측은 시간이나 공간이나 사회의 측면에서 구체화된 것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리스크가 현실이 되는 순간, 재앙으로 변한다.** 리스크는 가능성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미래 사건이다. 이 상존하는 위험이 우리의 기대를 규정하고 우리의 머리를 점령하며 우리의 행위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을 바꾸는 정치적 힘이 된다.

- 이 책이 제기하고 해답을 찾으려는 핵심 질문 중 하나는 리스크의 예상과 현실로 나타나는 재앙의 차이에 초점을 맞춘다.
  - 미래에 나타날 재앙의 한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어떤 경로로 리스크는 현실적이라는 줄어를 획득하는가? 즉 어떻게 해서 리스크는 신앙적인 예상으로서 국경과 지역, 종교와 정당, 빈부를 떠나 모든 사람의 머리와 체도를 지배하는가?
  - 왜 하필이면 재앙의 예상이 정치적인 것을 새로 창안하는 계기가 되는가?
- Answer → 글로벌 리스크는 글로벌 리스크의 현실 연출이다. (연출: 재앙인 리스크와 실제 재앙의 구분은 연출의 역할이 무엇인지 좀더 깊이 생각하도록 만든다; 왜냐하면 글로벌 리스크를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내는 연출을 통해서만 재앙의 미래는 현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연출 관점의 강조: 서구의 민주주의 제도와 자유를 파괴하는 것은 테러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의 글로벌 연출과 그 연출에 뒤이은 정치적 예측이다. : 감시카메라의 증가

- 권리의 제한은 그런 경험의 산물이며 그 경험을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예상함으로써 나타난 결과이다.
  - 테러리즘이 성공을 거듭한 배경: 미국 정부나 유럽 정부, 언론에서 활동하는 저널리스트들이 연출의 의미를 이제까지 인식하지 못했다. 사실도 있다.
    - 저널리스트들이 영상이나 사진을 확보하려는 경쟁: 테러리즘 하면 글로벌 위험을 떠올리게 만들거나 적어도 그 일에 협조함으로써 테러리스트들에 힘을 실어줌. 결과적으로 범인들을 지원: 테러리즘은 무수한 사망자들과 미국의 도덕적, 정치적 피해라는 최대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각주:이도하지 않은 부작용, 테러 조직은 이런 점을 교묘히 이용할 줄 안다.)

#### 리스크의 문화적 인식과 위험의 구분이 모호해진다

- 파괴와 재앙의 연출된 예견은 예방행위의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특히 국가에 해당한다.
  - 합리주의적 이해기 종종 문제시된다. 이는 일상생활 외에 자연과학과 공학, 심리학, 경제학, 의학에서도 통용된다. : 리스크를 기술하고 설명하고 예측하고, 또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식이 과학적 측정 방식과 계산 모델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 기술적 리스크 과학은 리스크와 인지의 분명한 구분에 기반을 둔다. 리스크 인지는 개인들의 관점과 태도를 조사하는 작업에 위임되어 있다. 대다수 국민들에게서 나타나는 리스크 인지의 비합리성은 부족한 정보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 리스크 문화의 충돌, 문화적으로 다른 리스크 현실들(리스크 인지)의 충돌은 21세기 세계정치에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4장)
  - 리스크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어떤 리스크는 리스크로 받아들여지는 반면, 다른 리스크는 그렇지 않다: 사람들의 주관성.
  - 리스크가 더 객관적이고 더 시급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그 리스크의 현실성은 그 리스크의 문화적 평가에 더 의존한다. 리스크의 객관성은 리스크 인지와 리스크 연출의 산물이다.

#### 글로벌 리스크의 유형

- 생태학적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테러리스트
  - 생태학적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의 공통점: 선한 것과 악한 것의 변증법 속에서 즉 현대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결정의 우연한 부작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테러리즘의 위기: 종래의 리스크 계산의 합리적 토대가 사라진다. 우연의 자리를 의도가 차지하고 선의 대신 악의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 리스크의 계산 가능성은 도덕적 배경에서 나온다.
  - 9.11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우월함에도 불구하고 서구 사회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일반인의 의식에 깊이 각인시켰다. 그와 함께 우리가 우연한 사고로부터 어느 정도 안전하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하지만 자살폭탄 테러에는 전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다.

#### 신앙화된 재앙의 예견은 21세기의 사회 개념을 바꾼다

- 글로벌 위험사회는 '세계주의적 계기'를 탄생시킨다(3장).
  - 글로벌 리스크의 연출과 경험, 갈등은 국가와 세계의 모든 영역에서 공동생활과 행위의 토대에 깊은 영향을 끼치고 변화시킨다.
  - 글로벌 리스크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을 접하는 새로운 태도를 읽어낼 수 있다.

- 한편으로 (비의도적)테라스크(기후변화)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다른 한편으로 (의도적)테라 공격이라는 새로운 위협에 대한 관심이 늘 공적인 관심사가 된다.
- 보편적인 문화 변동이 완성된다. (자연과 사회, 우리와 타자, ... 개인을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된다.)
-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지구적 책임윤리가 요청된다. 사회집단과 기업들은 이런 거시 윤리학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활동을 서로 조율하고, 리스크 평가에서 서로 경쟁한다. 사회학에서 근본 개념을 새로 규정하는 데 리스크는 없어서는 안 될 결정적인 요소이다.

#### 막스 베버의 '주 케인스 또는 무지의 중요한 역할을 의식에서 배제한다'

- 위험사회에서 글로벌 위험사회로의 도약을 두 사회학과 경제학의 거장에게서 확인.
- 베버: 리스크를 다루는 현대적 방식에서 통제논리학이 승리. 즉 현대의 근본 원칙의 발전과 특히 과학적, 경제적 합리성의 급진화로 인해 전체통치의 위힘이 커지고 있다. 이윤지향적인 자본주의의 승리로 인해 그렇다.
- 그는 불확실성의 카오스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학과 관료주의, 자본주의가 결합하여 현대를 일종의 감옥으로 변질시킨다고 생각했다. 이런 위험은 단순한 주변 현상이 아니라 성공적인 위험 합리화의 논리적 결과이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다.
- 리스크 현대를 다루는 과학은 예기치 못한 것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예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늘 탐색해 왔다.
- 리스크의 현실은 예기치 못한 것을 지시하라고 강요한다.
- : 프랭크 나이트(Frank Knight)와 케인스: 불확실성을 합리적으로 극복하려는 모든 시도의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다룬 첫 번째 학자들
  - 나이트: 1916. 코넬 대학에서 완성. 박사학위 제목: "리스크, 불확실성, 그리고 이윤"(Risk, Uncertainty and Profit) 1921

불확실성은 우리에게 친숙해진 리스크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앞으로 보겠지만, 측정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나 엄격한 의미의 리스크는 측량을 통해 파악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는 너무나 달라 실제로 그것은 불확실성이라 할 수 없다. (Knight 1921:205).

- 경제학 모델의 가설은 경제나 사회 또는 정치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의 결정, 결정의 결과나 부작용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가정들이다. 케인스는 그런 가정에서 경제학의 학설들이 현실 세계에 적용될 경우 틀리거나 재앙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리스크는 내적 놀리에 따르면 바로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또한 리스크는 불확실성이 효력을 발휘하게 만든다. 그것도 (세계경제 붕괴 같은) 재앙으로서 부정적인 효력뿐만 아니라 긍정적 인 효력, 즉 일상적인 '진정한 세계'의 경험은 이런 리스크 모델 과학의 지평선 밖에 있다는 효력을 발휘하게 만든다. : 케인스는 이런 과학적 모델을 거부한다.
- 베버의 합리적 모델은 리스크의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이 자동응용의 방법으로 '합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 케인스는 이런 생각이 반대한다. 즉 리스크의 불확실성을 다른 불확실한 리스크를 사용해서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모든 합리적인 재어 노력은 '비합리적이'고 계산할 수 없으며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결과를 가져온다. 기후재앙이나 글로벌 금융위기(Li Puma/Lee 2004) 같은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이를 증명해 준다.

- 리스크는 이해득실을 다지고 지금 미래를 결정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성찰의 한 모습이다. : 환경위기는 모순으로 등장

#### 4. 이 책의 논증건축과 구성

- 옛 리스크들(산업재해, 전쟁), 자연재앙(지진, 쓰나미)은 새로운 리스크들(기후재앙, 글로벌 금융위기, 저살폭탄 테러)과 겹치고 서로 연관되며,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종류의 예기치 못한 사용돌이를 일으킨다.
- 작가의 의도: 종래의 리스크이론과 리스크 사회학을 세 단계로 더 확장하려는 것
  - : 첫째 글로벌 시각에서, 둘째 이와 관련하여 연출의 관점에서, 셋째 생태학적 글로벌 리스크와 경제적 글로벌 리스크, 테러 리스크라는 세 리스크 논리를 비교하는 관점을 통해 확장하고자 함.
- 제 2장의 리스크 연출을 실마리로 잡고 제 12장 현대의 또는 인류의 공동생활의 가치원칙이나 기본 원칙 자체가 보편적으로 결정 대상이 된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감사합니다!